

인니 대선결과 및 현지상황

자카르타사무소

1. 2014. 7. 9일자 대선 결과에 대한 인니 선관위 공식발표

- '14. 7. 22일 오후 8시55분 인니 선관위(KPU)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기호 2번 조코위도도-유스프 칼라(Jokowi-JK) 후보조 53.15% 득표, 기호 2번 프라보위-하타(Prabowo-Hatta) 후보조는 46.85% 득표로 양 후보간 득표율은 6.3%이며, 결론적으로 조코위 후보조가 이번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공식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발표
- 인니의 총 33개 주 각각의 투표결과를 보면, 조코위 후보조는 총 21개 주에서 승리했으며, 프라보위 후보조는 총 12개 주에서 승리한 것으로 발표

[인니 대선결과 요약]

구분	조코위 후보	프라보위 후보
득표율	53.15%	46.85%
결과	당선	

2. 선거결과에 대한 국내외 언론보도 내용 및 현지 상황

- 대체적으로 인니 국내언론은 대선일('14. 7. 9일자) 저녁에 발표된 출구집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코위 후보의 승리를 예측했고, 그 동안의 인니 금융시장도 주가가 상승하고 달러-인니 루피아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는 등 조코위 후보의 대통령 선거 당선시 시장 및 언론 등에서 예견되어 왔음

* 총 11개 Quick Count 발표 기관 중 8개 기관은 조코위 후보조의 승리 (평균 득표율: 52.57%)를, 4개 기관은 뿌라보위 후보조의 승리(평균 득표율: 50.95%)를 예측했었음

** 인니 루피아 환율은 대선 전일인 '14. 7. 8일 달러당 @11,670루피아에서 대선결과 발표 다음날인 '14. 7. 23일 @11,472.50으로 안정세(자료: BCA)

□ 다만, 상대 후보였던 인니 특전사 출신 뿌라보위 후보는 일부 출구집계조사기관의 발표를 바탕으로 자신의 승리를 선언한 바 있으며, 뿌라보위를 지지하는 정당에서는 공식 선거결과가 발표되기 4시간 전 선관위의 공식 발표는 승복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번 대선은 무효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일부 뿌라보위를 지지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총연맹, KSPI)에서 대선결과 발표일(7.22) 대규모 시위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내 언론에서는 이번 대선결과로 인해 인니 사회가 당분간 사회불안이 가중될 수도 있음을 경고한 바 있음

○ 한편, 駐인니 한국대사관에서도 주요 정부기관과 독립기념탑이 위치한 자카르타 도심 방문을 자제하고, 주요 거리를 중심으로 향의집회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동 지역에 대한 방문을 삼가고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한국교민들을 대상으로 공지하였음

□ 한편, CNN 등 외신들도 자카르타발 기사를 통해 이번 선거결과를 보도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세한 평가 및 사회불안 요인에 대한 심층취재 없이 선관위의 발표내용과 조코위 후보의 동선을 따라서 사실 위주의 보도를 하고 있음

□ 하지만, 인니 내부적으로는 군부 출신인 뿌라보위 후보가 이번 선관위 발표결과를 승복한다는 발표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일부 지지세력들이 선거결과에 불복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며, 특히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니의 금식월(라마단)

직후 시작되는 르바란 휴일(7.28~8.1, 1주일)이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어 아직까지 이번 선거결과가 이대로 확정되어 사회가 안정 될 것인지, 뿌라보워 진영의 반발이 본격화되면서 사회가 혼란을 겪을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예측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다만, 선거결과 발표일 이후 수도경찰청에서 약 23,000여명, 군 병력 약 1,000여명이 자카르타 주요 지역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시위 또는 정치적 집회 등이 거의 없으며, 르바란 휴일을 맞아 쇼핑몰과 시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등 큰 사회불안요인은 아직까지 감지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